傘下 支部 動靜

▲慶南支部

86年6月3日 金正滿支部長은 月例綠生會를 居昌郡所長 황조연氏로 하여금 居昌에서 主管 開催토록 하였다。

이날 모든 綠生會員은 黃所長 경영 生藥材農場을 見學、대추、五味子、추자등 재배관리 方法에 對한폭넓은 전문과 배양 實驗및課程교육도 겸하여 實施한바 있었으므로 이는 他分所에도 規範的인 事例가 될뿐아니라、이날 會議과정은 慶南록생회의 團合과 親睦을 더욱 돈독히 하는데 기여했다。

▲江原道支部

86年6月14日 강원도록생회는 정선군所長 최윤철氏로 하여금 主管 정선에서 開催한바 있다。

이날 會議에는、

①自體會則의 新規作成 配付

②協會名義남용자 적발 및 시정대책 강구

③會勢伸張(會員조직및 栽培권장)에 對한 적극적인 活動전개

④地域단위 生藥材 選別재배에 對한 폭넓은 情報交流등이 主로 論議되었다。

▲協會本部

지난 6月10日 農水産部 國際協力課 추천으로 自由中國 農業改良場長 「張學現」氏가 藥用作物 栽培農場 見學次 本會를 來訪한바 있다。

裵事務局長 案內로 京畿道 吳寬秀支部長 經營農場 五味子재배장(4、000坪)、영지버섯재배장(4、000坪)、달래 및 어성草 재배장(1、000坪) 등을 두루 살펴본 뒤 抱川郡 事務所(이인기所長)를 訪問하고 郡관내 現況에 對한 개요와 李所長이 經營하는 人蔘및 沙蔘재배場白芍藥 재배場을 두루 見學하고 氣候및 土質余件에 差異가 많으나 앞으로 自己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藥用作物을 栽培開發해 보겠다는 意欲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張場長은 종자종묘등 구입절차 협의를 爲하여 再次 韓國을 訪問할 것을 希望한다고 말하였다

◆協會中央共販場에서는 濟州道産 蜈蚣이 위탁入荷되어 在庫中에 있음으로이를 수요로 하는 各級分事務所및 地方共販場 에서는 組織을 통한 系統出荷에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량을 協調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남 록생회원 생약농장 견학관경

農水産部强調指示事項

農水産部에서는 今年들어 協會산하 몇몇 地域에서 一般 건강植物인 달래머루、키위、덩굴茶등에 對한 栽培、收益案內등의 誇張홍보와 이의 종묘 종자등의 매매 영리行爲를 하므로서、各種民願이 接受되고 있음을 指摘하고 차후 本會基本기능 事業의 보다 더한 充實과 發展을爲하여 目的外 事業은 止揚하도록 强力히 促求된바있음으로 各級分事務所長은 이를 格別히 留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最近 한방界의 不況을틈탄 몰지각한 業者들이 數種의 主要生藥材를 買點賣惜하는 與論이 비등하고있는 가운데 品貴현상과 價格앙등이 초래되고 있음으로 당국에서는 不得已 輸入供給을 檢討하지 않을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면、生産農家나 商人들이 이를 賣惜저장하고 있다면 輸入과 價格下落을 自招하는 愚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하니 이를 깊히 念頭하시고 모든 산하會員은 물론 周邊業者들에게도 잘 啓導하여 生藥材流通질서유지에 힘써 달라고 指示하였다。

藥用作物 業務主管變更

今般 農水産部 職制一部 改編에 依據、現在까지의 本會業務 主務部署였던 特作課가 流通課로 改編됨에 따라 本會關聯 業務主管은 農産局 田作課로 移管取扱케 되었으니 이를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 솔선
질서의식 함양

協會定款개정안 許可獲得

◉協會는 제17차 定期總會에서 議決通過된바 있는 定款改定案을 관계 당국에 건의、그동안 접촉을 계속하여온바 있었는데 지난달 農水産部 특작2710－762호(86・5・8일부)로 그 변경이 許可 示達되었다。

그 主要변경 事項을 大別하면、

①市・道・郡・區에 分事務所를 둘수있으되 設置位置와 관할구역이 全體的으로 定款上에 明示되었음。

②일반會員의 加入時이사회 승인제도는 폐지되었음。

③입회금(가입비) 및회비의 정액은 총회에서 정하기로 되었음。

④총회구성요원은 과거 지역별 선출제도를 폐지하고、직책상으로 정관상에 고정화되었음。

⑤직제와 규정의 제정및 개정은 총회의결 사항으로 변경되었음。

⑥임원의 증원이 변경허가 되었음。

※협회임무 기능상에 수매・비축 조절사업의 추가는 민법상 저촉을 받아 부득이 삭제되었음。

시급한 자연생약 재배연구

자연 생약채취가 계속되면서 희귀종으로 변하거나 아예 멸종위기에 있는 약초들도 적지않게 나타나고 있다。

어업을 가리켜 잡는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시대가 변천한듯 자연생약보호가 아쉬운 시대가 되었다。

예를들면 속단、위령선、초롱담등도 거의 찾기힘들정도며 귀하게 쓰이는 가시오갈피 같은 생약제는고산지대에서도 희귀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약재배 연구기관을 두어서 자연생에만 의존하던 모든약초를 재배할수 있도록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일본에서는 약40年前에 民間 주도로、東京藥用植物園을 設立하여 現在 경영중에 있고 今年4月에는 藥事資料舘을 부설하였다고 하며 이中에는 展示室 研修室、試驗室등을 설치 生藥分野 기능强化에 貴重한 資料를 보급하고 있다 하니 對岸의 불구경만하고 있을때가 아닌줄 안다。

비닐하우스 같은 온상속에서 한번 길러봄직한음양곽이라든가 종근이식 으로 살려봄직한 속단、창출기타 모든 약초를 국내생산 가능케 한다면、복합영농으로 농민소득도 올리게되고 외국산 수입도 일체 지양될것이다。

어느시기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그렇게 될것이며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생약분야발전을 기대할수가 없다。

하루속히 자연생약 보호가 아쉽고、모든 약초를재배할수 있는 연구기관을두어 성공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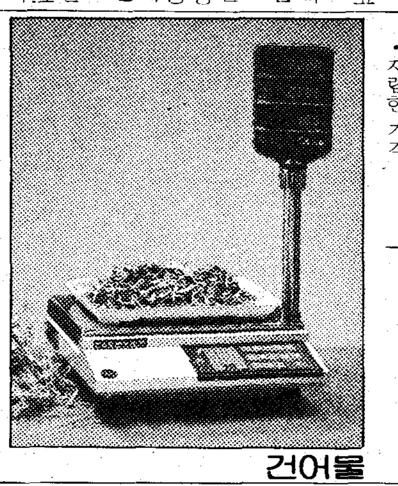
本部監事 朴永任。

첨단기술의 CBS전자저울

15M・6M
・10가지 MEMORY 기능
・고속계산기능
・간편한 조작
・용도：정육、식품、채소 청과、농수산물

15A・6A
・고속계산기능
・간편한 조작
・저렴한 가격
・용도：정육、식품、채소 청과、농수산물

◎생약재의 규격화 유통이 제도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협회에서 시험사용한 결과 고도산업사회에부응되는 좋은 「저울」로 사료되오니 필요하실때는협회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독자투고 민간요법

◎ 괭이밥

단단한 거리나、돌담사이、마당가 처마밑등 메마르고 단단한 땅 어디에서나 잘 자라기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다。

지방에 따라서는 고양이 시금이 고양이 밥이라고부르기도 하는 괭이밥은 우리가 흔히 잡초로 여기기 쉬운데 약초로도 이용하고 있기에 여기 소개하고저합니다。

괭이밥의 색깔은 녹색인것과 검붉은색 그리고 그중간색등이 있다。

꽃은 황색으로 햇볕이 없으면 피지 않으며、잎은 하트형으로 3엽으로 되어 크로바와 비슷하다。

괭이밥은 잎이 엷으면서 몇포기씩 따로 따로 무리를 작게 이루고 있지만 크로바는 잎이 두꺼우면서 질은 녹색으로 커다랗게 무리를 이루고 있다는데서 괭이밥과 크로바는 쉽게 알수 있었다。

종자는 꼬투리 모양으로 위로 향해 있으며 건드려 보면 탁탁 힘차게 튀어나간다。

괭이밥은 약으로 쓸때는 뿌리채 뽑아 그늘에 말리어서 사용하며 맛은 시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할때는 시금하다고도 한다。

약으로 사용할때의 효용은 임질에 괭이밥 15g정도 달여 먹으면 좋고、치질 탈장에 전초를 달인물로 씻으면 좋다。

그리고 종기나 옥、백신 어루러기、모기에게 물렸을 때 생잎을 수없이 비벼서 나오는 그 즙으로 바르기도 한다。

빨간머리나 흰머리에는 뿌리와 동백나무열매 그리고 검은콩을 함께 꿇여머리를 감으면 좋다。

이렇게 거리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잡초가 약으로 쓰인는 만큼 하찮은 잡초라해서 그냥 뽑아 버리지말고 어떤 약에 쓰이는지 생각하면서 채집해 두는 것도 이용가치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저는 작년에 경주 근화여자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부탁으로 우리 주위에 흔히 볼수 있는 채소와과일 그리고 잡초등을 식물채집하면서 사진까지 찍어서 조사해 보니 상당수에달하는 잡초들이 민간약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알았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을써서 안 될때는 한약을 써서 병을 낳게한 사람도 간혹 볼 수 있듯이 약초로 쓰이는 잡초들은 선별채집해서 가정상비약(민간요법)으로 이용해봄도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주소：경북 월성군 내남면 망성1리 886번지 권순채)

自然生 採取 (연재)

약＝(藥) 산＝(山)

○과 명＝서여과
○속 명＝마
○약용부＝뿌리

1、기본＝전국 산과 들에 자생하는 다년생 덩굴풀이다。

2、생장적지＝전국어디서든지 잘 자란다。

3、특징＝줄기는 가늘고 길게 뻗으며 잎은 어겨붙고 잎자루가 길며 긴 계란꼴로서 잎끝이 뾰족하다。

7～8월경에 영여자(零餘子)가 생기며 뿌리는 둥근꼴과 긴 기둥꼴이며 꽃은 암꽃숫꽃으로 나누어지고 잎 어깨에서 3～5개의 싹끝의 흰꽃이 핀다。숫꽃의 이삭은 위로향하고 암꽃의 이삭은 밑쪽으로 매달리며 암포기 잎 겨드랑이에 8～9월경에 씨앗 꼬투리가 생긴다。뿌리는 원추형으로 땅속 깊이 들어간다。

4、채종＝성숙한 꼬투리 씨앗을 채집한다。

5、파종＝채집한 씨앗을 채집 즉시 파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래속에 보관하였다가 다음해 4월경에 파종한다。

6、채취＝보통 3년이상 생장한 포기에서 뿌리를 가을에 캐낸다。

7、조제＝뿌리를 물에 씻고 겉껍질을 벗기고 햇볕에 충분히 말리어 제품으로 한다。

8、이용＝자양강장제 소화불량자의 만성장염 식은땀 신경쇠약 당뇨병등에 쓰인다。수출생약

영＝(營) 실＝(實)

○과 명＝장미과
○속 명＝찔레나무열매
○약용부＝열매

1、기본＝국내전역에 잘 자라는 생존력이 강한 가시돋는 자연생작은 나무이다。

2、생장적지＝산과 들 길가 언덕등 어디서나 잘 자란다。

3、특징＝덩굴모양으로 자라며 줄기에 날카로운 가시가 달려있고 잎은 복엽으로 4～7매정도로 이루어지고 꽃은 늦은 봄부터 초여름 사이에 작은흰꽃이 가지끝에 피고아름다운 향기가 있다。

열매는 성숙하면 진홍색으로 그 빛이 아름다워서 잎이 떨어진후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

4、채종＝씨앗은 성숙한 열매에서 가을에 채집한다。

5、파종＝5월하순부터 6월상순 사이에 삽목을 행한다。

6、채취＝늦은 여름부터 늦가을 사이에 걸쳐서 열매를 채취한다。

7、조제＝열매를 절구에 찧어서 겉껍질을 벗긴것을 영실이라고 한다。

8、이용＝완하제로 사용한다。

「불가능 하다고 생각지 않은 한 인간은 절대로 패배하지않는다」
—세계 名言中에서—

〈2면에서 계속〉

3주간의 어학연수기간 중 학생들이 느끼는 가장 큰 갈등은어학연수에만 집중할 것인가、아니면 견문을 넓히는 데에 치중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짜여진 수업시간 때문에 임의로 영국의 이모저모를 본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그래서 이러한과외욕구는 주말에 충족하며 수업에 충실을기했다。

견학연수위해 프랑스로

어학연수가 끝나고 교육담당자들로부터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평을 받았다。어학연수가 끝나는 날 저녁 한민박집의 지하실을 빌어 종합평가회 겸 파티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어 실력이 크게 늘었다고는 생각지 않으나 최소한 외국인과 만났을때의 두려움은 없어졌다고들 했다。내가 보기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실력면에서도 많은 향상을 보인 것이 사실이었다。물론 두명은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어학연수기간 내내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었고、가볍게 방학동안의 해외여행이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은 수업 받으랴 외국생활에 적응하랴 정말 힘든 3주간이었으리라。그러나 대부분이 여유있는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이었지만 개인의 앞날을 위해서、또 무리를 해가며 해외연수를 보내준 부모님을 생각해서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는 자세로 그 어려운 환경을 견디어내는 것을볼 때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어학연수를 마친 우리는 영국해협을 건너 프랑스의 항구도시 르하브르에 도착했다。여기서부터 3주간의 견학연수、즉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된 것이다。

프랑스 파리의 화려함과 벨기에・네덜란드의 소박한 전원도시、학문과 낭만의 도시 하이델베르크、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근면한 모습、그리고 이탈리아의 고적등은 갖가지 감흥을 일으키는 풍물이었다。이러한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학생들은 부지런한 국민이 역시 잘산다는 점을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예를 들면 스위스같은 나라에서는 은행문이 아침 7시에 열렸다。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이른 시각이었다。그렇다고 일찍 문을 닫는 것도 아니었다。스위스의 아침거리는 활기에 차 있었다。6시부터 8시까지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은 모두 생기가 있었으며、복장도 깨끗했다。1인당 GNP 1만3천달러라는 GNP가 높은 생활수준을 이해할 수 있었다。같은 유럽에서도 이탈리아는 1인당 GNP가 6천달러 정도라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근면성을 주장한 프로테스탄트이념을 무색케 하고 있지는 않았다。어디를 가나 집집마다 창가에 꽃을 키우고 있었지만、시든꽃은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은 정말 큰 놀라움이었다。